

한국양계산업의 요람기를 회고하면서

30 돌 장년기를 맞은 월간양계 관계자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30년전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창간에 힘써주신 오봉국 당시 가금협회장님과 여러분께도 축하드린다.

월간양계지는 우리 양계인들의 반려자로 그

위치를 다진지 오래이며, 신뢰성과 친근성을 공유하고 있다.

저간 양계인과 양계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 양계협회의 재정에도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기에 또한 그 공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앞으로는 양계산업의 더 한층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터이라 월간양계지에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성실하고 과학적인 편집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이 재 근

- 전 고려대학교 교수
- 전 한국가금협회 2대 회장

한국동란 직후의 양계업은 아주 영세한데다 전란으로 인하여 닭이 거의 전멸한 상태이었으며, 사료도 자가배합을 해야했고, 특히 비타민A의 공급원으로는 청초를 잘게 썰어주어야 했고, 비타민D의 급원으로는 일광욕이 필요해서 계사에 꼭 운동장을 부설해야 했다.

한편 동란으로 생업을 잃은 많은 도시민들은 양계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1. 가금연구회의 발족

오봉국박사의 주선으로 가금학계 인사들이 충남 대천종축장에서 처음으로 회동하여 한국가금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오봉국, 김동곤, 최창해, 이선형, 이남표, 오세정, 민덕기, 이재근 등 제씨로 기억된다. 우리들은 낙후된 우리나라 가금학계와 업계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회는 국립축산시험장, 안양종축장, 경기도 광주종축장, 서울대농대 등을 순회하며 견학과 토의를 해왔다.

특히 안양종축장에서는 풀이용양계로서 풀을 절단, 미쇄, 중균처리하여 급여함으로써 농후사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의 실용화 실험을 견학하였던 것이 기억된다. 그때까지는 미국으로부터 곡물이 수입되지 않고 있었다. 이 풀이용양계의 연구는 일본에서 그 당시 많이 하고 있었다.

2. 장안 양계강습회의 태동

1961년경인가 충북대학에서 아담한 부화실을 신설하고 서울의 김현배씨에게 1만개들이 부란기의 제작 설치를 의뢰했다. 큐크리형으로 아주 성능이 우수했다.

백색레그혼 종란을 사모아 학생실습으로 부화했다니 초생추가 잘 팔려서 실험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부란기 설치과정에 김현배씨와 나는 매우 친숙해졌다. 그의 선비형 모습과 침착하며, 탐구적인 풍모에 매우 호감이 갔다.

소주잔을 나누는 가운데 서울양계업계에서 양계기술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게되었고, 이때 장안동 양계친목회에 나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즉석에서 서울대농대의 오봉국 교수를 소개했다. 오교수님이 이에 응하여 양계기술강습회는 시작되었고, 아주 성황리에 계속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장안양계친목회가 모체가 되어 한국가금협회로 발전하였음을 회상할 때 금석지감이 없지 않다.



초창기에 시작된 양계 강습회가 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3. 한국가금협회의 발족

내가 고려대학교로 직장을 옮기던 해 가금협회는 사단법인의 인가를 받았으며, 나는 그 해 12월의 정기총회에서 윤상원 선생님의 뒤를 이어 제2대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나는 모든 면이 생소해서 사양하고 주저했다. 그러나 부회장인 김원복, 이창렬씨를 비롯하여 상무이사인 박도현씨, 임원진인 김영희, 오봉국, 김동곤, 김영석, 김정현, 오세정, 이필용 등 제씨의 동지적 열의와 우애는 대단한 것이어서, 나는 이 분들과의 거의 신앙적인 일체의식속에 동화되어, 나의 모든 정력을 가금협회 건설에 쏟을 수 있게 되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된 월례강습회, 그리고 강습회 후에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여 이루어지는 이사회는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순수하고 진지했다. 으레 서로의 주머니를 털어 소주와 불고기로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협회일을 상의했다.

4. 종계능력검정 사업

이 당시 우리 양계업계는 우수종계에 대한 요구가 절실했으며, 자연적인 추세로 부화업자들은 자기나름대로 모두 종계의 육종개발에 심

혈을 기울이고 있는 터여서, 그 능력을 조사, 측정할 수 있는 종계능력검정사업의 실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우리 협회는 이에대한 지원책을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우선 협회자력으로 검정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경기도 광주종축장장 이남표씨의 결단으로 협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 종축장의 계사 1동을 빌어 쓰기로 하고, 학계 및 업계인사로 종계능력검정위원회를 구성, 검정규정을 제정하여 7개 업체로부터 출품을 받았다. 위원장인 김동곤씨의 주선으로 평택부화장에서 부화를 했다. 1개구 50수씩 출품했는데 그 성적은 미비한 시설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결과로 500일 검정을 마칠 수 있었다.

이 검정결과는 우리 양계인들에게는 물론 정부당국에 대해서도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며, 또한 양계협회에 대한 객관적 자질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00일 검정기간중 극히 일부의 재정지원을 한 이외는 일체의 운영을 이남표 장장님께 위임하였으니 이장장님의 저간의 심려와 노고는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되어 새삼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이때 검정위원 여러분과 같이 검정현장 답사를 마치고 곤지암 농가에서 어울려 들었던 구수한 음식과 농주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후 우리 회장단은 종계능력검정사업비 국고보조를 얻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나 현직 축산시험장장(황영구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애를 먹었다. 일본 등 외국의 실례와 협회의 공신력 등의 명분을 내세워 축산시험장에서 해야 된다고 압력을 가하니 축산국장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 회장단은 국회의원, 국회전문위원, 장·차관 등 요로에 대한 건의 설득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일희일비가 교차되는 가운데 김원복, 김영희 두 부회장님과 나는 지친 몸을 소줏잔으로 달래곤 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져 1966년도 정부 예산에 국고보조비가 계상반영되었다. 검정사 1동, 육추사 1동, 부화실 1동 창고의 건물비만 보조토록 되었으며, 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라는 조건이었다.

이때의 우리 협회 가족들의 기쁨을 그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으리요, 초창기였던 협회의 배경이나 실적으로 보아 정부당국자로서도 가금협회를 국고보조 대상으로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데다가 축산시험장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으니 주저할 만도 했으리라. 그 당시 우리 가금협회는 학계와 업계의 총화단결로 급진적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세간에 평가되고 있었기에 당국에서도 공명했던 것으로 믿어졌다. 여하튼 어려운 일을 결단하여 우리 가금협회의 닭 능력검정사업의 기틀을 튼튼히 마련해 주신 김영한 전 축산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협회는 급히 검정소 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서울근교를 돌아다니며 물색한 결과 공능동 당시 서울대공대 앞 과수원 1,800여평을 구입하기로 했다. 평평하고 네모가 반듯한 사질토양이어서 전면적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나 사람의 왕래가 아주 적은 등의 장점을 고려했다. 면적이 작고 도시내에 위치하여 검정소로서의 객관성 확보에는 문제점이 많았지만 가난한 협회의 첫살림형편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우리는 그해 12월 정기총회 석상에서 자진 출연을 호소하여 즉석에서 100여만원의 거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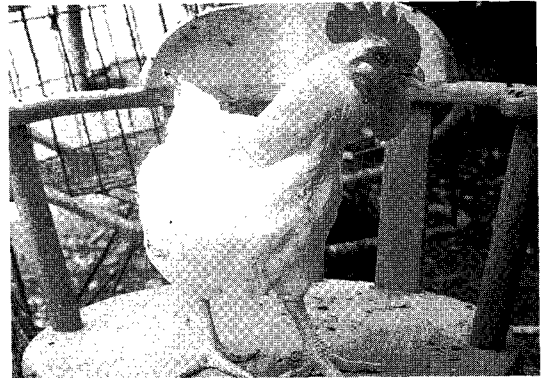
이때의 열광적인 협찬 분위기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니, 회원 모두의 성의가 모여 이루어진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이때 거금을 출연해 주신 김영희, 김원복, 박도현, 이창렬, 이필용, 김현배 제씨 그밖의 여러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66년 3월 협회는 정부공인 제1회 산란계 능력검정사업에 착수했다. 50수씩 10개구의 출품으로 부화는 동신부화장에 의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육추는 이창렬 전임 부회장댁(이문동소재) 계사를 사용했다.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부화실, 육추사, 검정사의 건축이 끝난후 길일을 택해서 관계당국, 관련기관 및 우리 회원들이 검정소 현장에 모여 뜻깊은 준공식을 가졌으며, 이렇게 해서 우리 협회의 능력검정사업은 고고의 소리를 울리게 되었다.

그후 서울시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부득이 김포군으로 이전하고, 다시 환경 형편으로 현재의 안성군 서운면으로 이전했다. 현재의 검정소 부지면적은 1,410평이며, 건물 1,385평으로 양계협회가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마음 든든하다.

현재까지의 검정실적은 산란계 500일 검정(현 78주 검정) 31회, 육용계 7~10주 검정(현 7주 검정) 56회이다(1999년 12월 현재). 오늘날까지 30여년간 연면히 산란계 및 육용계의 능력을 검정하여 종계의 개량과 사육자의 선택의 지표를 주고 있으니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5. 양계업의 산업화 과정

계란의 유엔군납 : 한국 주둔 유엔군에 대한 계란의 군납은 1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계속 되어 한국양계업의 발전과 수급인정 및 외화획득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 수량은 대략 1년에 1,500만개~3,500만개의 범위였다. 엄격한 검사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온저장 시설을 갖추고, 계란을 엄선해야 했다.

6. 외국계의 도입과 국산종계의 개발

1952년 미국으로부터 뉴햄프셔종란이 수입되어 구포에서 부화한 이래 빠른 속도로 전국에 사육·분포되었다.

깃털이 갈색이고 알도 갈색이며, 성질이 온순하여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되었다. 또 레스혼종과 교배하여 얻은 햄프혼은 육용계로서 급속히 보급, 애용되었다.

1960년대에 들면서 외국산란종계(P.S)가 물밀 듯 들어왔는데 김바, 하이라인, 닉칙, 하이섹스, 세이바, 스타크로스, 바브콕 등으로 기억된다. 그에 뒤이어 원종계(G.P.S)도 도입되어 외국계 병아리의 홍수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는 곧 생산과잉과 양계불황을 가져왔다.

육용계 계통도 하바드, 윌프락, 코브, 세이바,

스타브로 등 많은 P.S 또는 G.P.S가 수입되어 육용계 시장은 외국계 브로일러로 급속히 바뀌어 갔다.

국산종계의 개발에 정열과 집념을 바친분이 두 분 있으니 그는 한협외 박도현 사장과 천호의 이계조 사장이다.

박도현 사장은 오봉국 교수의 지원하에 미네소타 근교계를 확보하고 종계개발을 시도하여, 한협종계의 작출을 보아 많이 보급되기도 했다.

천호의 이계조 사장은 화란 유리브리드 회사로부터 백색산란순계, 갈색산란순계, 육용순계를 도입하여, 각종 육종첨단 시설을 갖춘 가운데 마니나 백색산란종계, 브라운 산란종계, 마니커 육용종계를 작출하여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동남아에 수출하기도 했다.

7. 사료공업의 발달과 외국기업의 유입

196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늘어나는 산란계와 영계 생산용 사료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료생산 기업이 출현했으며 푸리나코리아, 카길 등 외국의 곡물사료회사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국내 사료기업들과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국내 사료생산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8. 케이지의 보급과 종계의 인공수정

닭의 사육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입체적으로 대량 사육할 수 있는 케이지가 도입되었다. 산란계는 물론이고, 육추, 육성기간 모두 철제 케이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병아리의 외상(外傷)이 심하여 바타리병에 시달리기도 했다.

종계용 암탉들도 대부분 케이지에 수용하게

되어 종란을 얻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닭의 인공수정은 기술은 비교적 쉽지만 암탉생식기의 해부학적 구조와 수정생리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의하여 이루어지는 닭의 인공수정은 수정을 저하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영주서부터 닭의 번식생리에 관한 지식의 습득이 요구된다.

9. 닭 질병의 예방과약품공업의 발달

뉴캐슬병, 계두, 추백리, 가금페스트, 마렉병, IB 등 발생하기 쉬운 전염성 질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가축위생 연구소에 가금과가 설치되었다.

유한양행 등 국내 약품제조업체들은 비타민 A, D를 비롯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물론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약재를 첨가하게 되었다.

10. 육계산업의 발달

산란계 수평아리, 햄프혼 등을 목재 배터리 또는 철제 케이지에 수용, 400~600g에 달하면 출하하는 시스템의 영계산업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아주 영세한 분들이 병아리, 사료 모두 외상으로 얻어 기르다가, 생산과잉으로 시세가 폭락하여 야반도주하는 사례도 허다했다.

11. 양계경영과 수직통합

대한사료회사, 천호부화장 등은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면서 농가와 계약생산체제를 실시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지속하지는 못한 것 같다.

12. 양계산물의 처리, 가공

전국적으로 많은 도계장이 설치되어 브로일러와 노폐계의 도계처리를 하게 되었다. 대한사료가 경영하는 대형 도계장에서는 우모, 내장 등을 일괄작업에 의해서 비료화 과정까지 하고 있었다.

영육농장, 천호 등이 삼계탕 등 다양한 닭고기 가공품을 제조판매하고 수출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13. 양계업 발전에 대한 지견

첫째, 축협이 적극적으로 양계산업발전에 참여해야 된다. 축산통계를 보면 아직도 영세한 2만수 미만의 양계농가가 거의 1/3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에게 위생적인 계란의 보존과 출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역축협 또는 축협이 연합하여, 계란을 수집, 수세(水洗), 코팅, 포장, 출하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란의 식품적 안전성이 확보되고 소비층의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지금도 오래 묵은 계란, 비위생적인 계란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21세기에든 이러한 상태로 놓아둘 것인가! 가능하다면 현재의 경북양계협동조합과 같이, 산란노계에 이르기까지 조합에서 처리, 가공, 수출까지 일괄 관장하는 성의와 지혜가 있는 축협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농대내에 가금학과의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유가축과 닭 또는 칠면조 등 조류는 그 해부, 생리, 영양, 육종, 번식, 가공 등의 측면에서 전혀 그 원류가 다르다.

나는 닭의 인공수정에 관한 연구를 깊이있게 하면서 닭의 번식생리가 얼마나 독특한가를 알게되었다.

암탉은 자궁·질결 합부에 무수한 정자선(腺)을 가지고 있으며, 질내에 주입된 정자는 정자선내에 수용되어, 거의 한달동안 그 안에서 건전하게 살면서, 매일 산란을 하면 그 직후에 일부가 자궁내에 배출되어, 수정부위인 수두부까지 아주 단시간에 난관의 역운동에 힘입어 올라가서 다음번 배란되는 난자 즉 난황과 만나 수정을 하는 것이다.

그후 난관을 내려오면서 알끈, 흰자, 난각막이 형성되고 자궁내에 머물면서 굳은 난각이 형성되어 대략 24시간 간격으로 수정란을 낳는 것이다.

어떠한 영양화학적인 기구를 거쳐 전자선내에 수용된 정자가 15일 이상, 한달씩이나 수정능력을 유지하면서 암탉의 정자선내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또 그 정자들이 어떠한 생리기구에 의하여 산란직후에 일부만이 자궁내에 배출되어 정자와의 수정에 참여하는 것인지. 참 오묘하고 독특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독특한 학문을 농대 축산과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교율할 것인가. 가금의 세분된 각 분야에 걸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선진 미국 등에는 가금학과의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닭의 수정생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학자가 미국에 현존한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학문의 세계이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21세기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된다. 특히 국내 축산대학에 가금학과의 신설을 간곡히 당부한다. **양계**